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김 기 덕

TV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연구

- KBS 1박 2일 <경주 남산> 편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정보콘텐츠학과

최 승 용

TV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the Applic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TV Real Variety Program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정보콘텐츠학과

최 승 용

최승용의 문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13년 12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
그림목차	iii
국문초록	iv
제1장 머리말	1
제2장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설명 방식	5
제1절 장소의 아우라	15
제2절 삶의 스토리텔링	20
제3절 예술적 기교	22
제3장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활용전략	28
제1절 야외수업의 서사 구성	30
제2절 TV 자막을 이용한 서사 내용 설명	34
제3절 <경주 남산> 편의 서사와 문화유산의 표현방식	40
제4장 맺음말	43
참고문헌	46
ABSTRACT	50

표 목 차

<표 1> <경주 남산> 편 의 문화유산 설명 내용	9
<표 2> <경주 남산> 편 의 문화유산 퀴즈	32
<표 3> 경주 남산 문화유산의 소개 자막	37



그림 목 차

<그림 1-1> 경주 남산 권역별 문화유산 지도	6
<그림 1-2> 1박 2일 <경주 남산> 편 답사 코스	7
<그림 2>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특징과 주제 도출	12
<그림 3> 경주 남산 문화유산의 설명방식	13
<그림 4-1> 육존불 바위 위에서 본 경관	17
<그림 4-2> 상사암에서 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18
<그림 4-3> 산 아래에서 본 용장사곡 삼층 석탑	18
<그림 4-4>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의 장소성	19
<그림 5-1> 육존불 위 배수로와 전실지붕 흔적	20
<그림 5-2>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의 복원된 얼굴면	21
<그림 6-1> 냉곡 석조여래좌상의 가사 끈과 매듭	22
<그림 6-2>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23
<그림 6-3>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24
<그림 6-4> 용장사곡 삼층석탑	25
<그림 6-5>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	26
<그림 6-6> 칠불암 마애불상군 본존불 좌대의 연꽃무늬	27
<그림 7-1> 문화유산의 직접 설명	28
<그림 7-2>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서사	29
<그림 8> 야외수업의 서사	30
<그림 9> 야외수업의 서사 전개 과정	33
<그림 10-1> 경주 남산 문화유산의 요약적 설명 장면	36
<그림 10-2> 컴퓨터 그래픽과 만화적 표현을 통한 재현	38
<그림 11>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문화유산의 표현방식	42

TV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연구
- KBS 1박 2일 <경주 남산> 편을 중심으로

본 글은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 프로그램인 KBS 2TV 《1박 2일》에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경주 남산> 편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대중 친화적인 표현방식을 연구한 글이다.

<경주 남산> 편에서는 문화유산이 주변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가지는 분위기와 그 장소에 있음으로서 인간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장소의 아우라’로 설명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우리네 삶과 연결하여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인간의 삶과 문화유산의 관계성을 ‘삶의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묘사와 상징적 표현, 시대적 조형미를 ‘예술적 기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경주 남산> 편에 특별출연한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되고, 연예인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학생이 되었다. 즉 선생님과 학생이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문화유산 수업이 이루어지는 ‘야외수업의 서사’를 구성하였다.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체험과 관찰을 통한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은 도전과 체험 중심의 실제 상황이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포맷과 통한다. 그리고 유홍준의 설명과 연예인들의 표현은 문화유산 전문가의 설명과 수용자가 그것에 응답하여 자신의 감상과 물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유산의 이해과정과 닮았다. 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특징인 인물들의 서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시청자의 내용 이해를 돕고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막을 사용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의 방식은 <경주 남산> 편에서 자막을 통해 서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어 : 경주 남산, 문화유산, 리얼 버라이어티, 1박 2일, 전통문화, 문화콘텐츠

제1장 머리말

본 글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KBS 2TV 《1박 2일》에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경주 남산> 편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대중 친화적인 표현방식을 연구한 글이다.

1999년 북경의 『청년보』라는 잡지에서 처음으로 ‘한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한류’는 한국 문화를 외국에 전파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는 <겨울연가>가 방영되고, <대장금>과 <주몽>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아시아를 강타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류 1.0이다. 2005년에 들어서는 아이돌 그룹이 중심이 되어 이른바 K-Pop이 아시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2011년 마침내 프랑스 파리 공연을 계기로 유럽에까지 진출하는 한류 2.0 시대를 구가하였다.¹⁾ 2012년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의 세계적 흥행 이후로 한류는 또 한 번의 진보를 보인다. 세계인이 한국인과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문화 전반에 관심을 보이는 한류 3.0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한국의 예술, 영화, 문학, 음식, 옷 등 문화의 전 분야에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한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문화 전 분야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류 3.0 시대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한류 3.0’은 단순한 상품의 차원을 벗어나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담아내고 보편성의 세계와 마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류 3.0’은 한국문화가 세계 문화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글로벌 이슈들을 고민 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문화 구성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와 공감 지향적인 문화를 말한다. 이것이 한류 콘텐츠가 상품과 마케팅의 논리를 넘어서 타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문화 공동체간의 친밀감을 높이면서 창의적인 한류, 즉 한류 3.0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²⁾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며 그 특수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미

1) 최광식, 『한류로드』, 나남, 2013, 9-10쪽.

2) 김동윤, 「창조적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창발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 연구」, 『인문콘텐츠』 제19호, 2010, 437쪽.

슐랭 가이드 한국판'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한 23곳은 대부분 경북궁, 북촌, 경주 양동마을과 같은 전통문화유산을 꼽고 있다.³⁾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문화만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이며 한국문화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지층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전통문화이다. 그렇다면 전통문화 중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세계인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지정된 우리 문화유산이다. 세계 시장의 문화코드와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세계유산이며, 따라서 향후 과제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인문콘텐츠를 발굴하는 것과 그것을 오늘날의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산출하는 것이다.⁴⁾ 다양한 매체 중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실제 구현에 있어서나 다양한 콘텐츠의 형태에 있어서나 가장 핵심적 구성물은 영상의 형태를 띤다.⁵⁾ 유튜브(YouTube)로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는 이미 영상으로 표현되고 영상으로 소비된다. 이처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상매체와 보편성을 획득한 우리문화유산을 결합하여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영상매체인 TV에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대표적 장르로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제 문화유산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오락 프로그램 장르인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에서도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TV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음악과 토크, 코미디와 게임 등이 포함되는 복합장르인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를 변형하여 출연하는 연예인들에게 도전, 연애, 여행, 생존 등의 임무를 준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연예인들의 실제상황(Real)을 주 내용으로 제작한 예능 오락 프로그램이다.⁶⁾ KBS 2TV <1박 2일>,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 등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며 이들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3) 이원태,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 『제1회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 포럼: 전통문화는 한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2쪽.

4) 김기덕 외, 「한국 세계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융복합 문화콘텐츠 정책사업 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2012-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6쪽.

5) 김기덕, 『한국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7, 104쪽.

6) 김기란, 최기호, 『대중문화 사전』, 현실문화연구, 2009.

이러한 인기의 대중적 코드를 연구하기 위해 김미라(2008)⁷⁾는 ‘재미’와 ‘즐거움’을 유발하는 텍스트 내의 표현양식과 구성요소 등 그 기제들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비전형적인 과장된 캐릭터의 설정과 반복적 활용, 미리 계획되지 않은 에피소드와 해프닝 중심의 촉매 기능의 강화, 상호수동성(interpassivity)에 기인한 대신 놀아주기, 제작진과 일반인들의 자연스러운 노출과 스타의 일상적 모습의 폭로를 통한 리얼리티 강화 등이 주요한 기제라고 분석하였다. 김중신(2009)⁸⁾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막 언어에 주목하여 자막언어는 정보전달 효과뿐만 아니라 서사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고 그것을 ‘발화주체’와 ‘발화내용’에 초점을 맞춰 《1박 2일》의 제주도편을 중심으로 자막언어를 분석하여 그 서사적 기능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용자 관점에서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수용경험에 대해 연구한 옥민혜, 박동숙(2010)⁹⁾은 수용자들이 리얼 버라이어티 쇼로부터 기대하는 현실감의 속성은 ‘다큐적 리얼리티’와는 차별화되는 ‘오락적 리얼리티’이며 이러한 현실감은 캐릭터, 자막, 소재 등의 활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역시 수용자 관점에서 ‘시청 동기와 만족도’를 조사한 이은정(2008)¹⁰⁾은 주된 시청 동기 요인은 내용, 오락 추구,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중 내용적 요인이 프로그램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오락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단순 재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내용이 있어야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구조나 형식을 중심으로 대중화 코드를 분석했지만 본인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 내용이 리얼 버라이어티의 어떠한 표현방식과 만나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표현방식과 함께 프로

7) 김미라,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67호, 한국방송학회, 2008.

8) 김중신, 「TV 자막 언어의 서사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 리얼 프로그램 <1박 2일>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2호, 한국독서학회, 2009.

9) 옥민혜, 박동숙, 「‘오락적 현실감’ 작동 방식과 상호텍스트성: 리얼 버라이어티 쇼 수용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1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10) 이은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선호요인 분석 - <무한도전>과 <1박 2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학위논문, 2008.

그림의 소재 선택과 내용 분석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그 둘을 모두 고려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KBS 2TV 《1박 2일》은 대한민국의 국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1박 2일 동안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다니다 보니 각 지방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아날로그적 감성과 현대의 오락적 요소가 만나 세대를 아우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00번째 여행 특집으로 《1박 2일》PD는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를 섭외하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답사여행을 기획하였다.¹¹⁾ 경주의 남산을 중심으로 한 ‘경주답사 여행-남산의 7가지 보물을 찾아서’ 편(2011.10.16. 방영)이 그것이며 이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은 기존의 오락프로에서 한 단계 진보한 교양과 오락, 의미와 재미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¹²⁾

지금까지 다큐멘터리를 비롯하여 경주의 남산을 표현한 영상물은 많았으나 이처럼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왜 대중들은 미술사학자 유홍준과 함께한 KBS 2TV 1박 2일 <경주 남산> 편(시청률 25.7%)에 그토록 열광한 것일까? 나아가 <경주 남산> 편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문화유산을 영상매체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KBS 2TV 《1박 2일》에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경주 남산> 편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대중 친화적인 표현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KBS 2TV 1박 2일 <경주 남산> 편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TV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특징과 TV 시청자로서의 수용자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한다. 그리고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을 설명한 문헌연구와 답사를 통한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11) “이번 답사 여행을 통해 이런 여행도 있을 수 있구나 란 새로움을 제시해보고 싶었다.”며 “시청자들에게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나영석 PD "유홍준 교수와 답사 여행, 새로운 도전"」, 『이데일리』, 2011.10.10.

12) 「"1박2일" 새 길' 답사여행의 진가」, 『이데일리』, 2011.10.17.

「'1박2일' 경주 남산 7대 보물 답사여행, '웃음+감동' 시청자 호평」, 『엑스포즈뉴스』, 2011.10.17.

「'1박2일' 유홍준 교수와 경주 답사..'교과서 필요없네' 호평」, 『OSEN』, 2011.10.17.

「'1박 2일', 예능의 재발견 '경주답사여행' 호평」,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1.10.23.

「'1박2일' 경주 답사여행 "재밌는 국사강의" 호평 봇물」, 『Newsen』, 2011.10.23.

「'1박2일' 경주 답사 마무리..시청자들 '감탄 연발」, 『OSEN』, 2011.10.25.

제2장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설명 방식

경주는 역사적 자원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땅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결합하여 문화적인 도시가 하나의 창조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문화 도시는 도시의 역사를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엮어 내고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¹³⁾ 따라서 문화 도시에서는 도시에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맥락(context)’이 중요하게 되고, 역사성에 근간한 다양한 특성들이 문화 도시의 개념을 규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¹⁴⁾ 경주는 ‘아름다운 문화도시(Beautiful Gyeongju)’로 장소(도시) 브랜딩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Kyeongju Historic Area)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¹⁵⁾ 이처럼 문화도시의 콘텐츠는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 개성 있는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문화자본이다. 일상적인 문화와 지역의 정체성, 주민참여와 문화향유, 소통과 사회 통합적 특성, 전체 도시의 조화로운 특성 등 다양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순환되는 곳이 문화도시의 콘텐츠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¹⁶⁾

문화도시 경주의 콘텐츠인 경주 남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으로 등재된 경주역사문화지구(Kyeongju Historic Area) 중 하나인 남산지구이다. 남산의 골짜기 마다 석불과 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골짜기 전체의 분위기를 헤치지 않고 원래 거기에 있었던 마냥 배치되어 있어 ‘불교 야외 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최대한 인공미를 배제한 이러한 석불들은 남산이라는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김원룡은 南山 佛蹟의 美¹⁷⁾라는 글에서 “남산의 석불들을 총괄해서

13) 조명래, 「문화경제화와 문화 도시계획」, 『도시연구』 제6호, 한국도시연구소, 2000.

14) 이병민,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략과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25집 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18쪽.

15) 경주시청 홈페이지, www.gyeongju.go.kr

16) 이병민, 「콘텐츠 생태계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인문콘텐츠』 제2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34쪽.

17) 강우방, 『慶州 南山-김원룡, 南山 佛蹟의 美』, 열화당, 1991, 18쪽.

그들이 가지는 공통적 특징은 부처와 자연과의 神妙한 조화에서 오는 부드럽고 따뜻한 친밀감이다. 바위들이 남산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에 새겨진 부처도 산의 한 요소로 되어버렸고 산과 바위와 부처 사이에는 조금도 이질감이 없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경주 남산은 신라인의 자취와 더 나아가 우리문화유산의 자연과의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불상과 탑을 감상하며 산행하는 장소이다.



<그림 1-1> 경주 남산 권역별 문화유산 지도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답사는 크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삼릉권(三陵圈), 용장사권(茸長寺圈), 천룡사권(天龍寺圈), 칠불암권(七佛庵圈), 동남산권(東南山圈) 이다. 이 중 <경주 남산> 편에서는 삼릉권-용장사권-칠불암권역을 조합하여 구성한 코스이다.



<그림 1-2> 1박 2일 <경주 남산> 편 답사 코스¹⁸⁾

<경주 남산> 편에서는 西南山의 삼릉(三陵)을 시작으로 금오봉(金鰲峰)으로 올라 능선을 따라 용장계(葦長溪) 탐상골(塔上谷)의 용장사지를 거쳐 東南山 봉화골(烽火谷)의 칠불암(七佛庵)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선택했다. 이 코스가 시작되는 삼릉골은 골이 깊고 크며 마애불(磨崖佛), 선각불(線刻佛), 입체불(立體佛) 등 다양한 형태의 불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기적으로도 신라 초기 시원양식의 불상부터 삼국 통일 후 신라 전성기의 정제된 아름다움을 가진 불상, 신라 말 또는 고려 초의 파격과 변형의 아름다움을 가진 불상도 만날 수 있다. 용장사터가 있었던 용장계와 이어진 탐상골에도 삼층석탑, 마애불, 방석을 높이 쌓아 그 위에 자리 잡은 것 같은 삼륜 대좌 위의 좌불 등 불상과 탑이 골고루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西南山의 삼릉에서 용장골로 내려오는 약 5시간의 코스를 문화유산 답사코스로 잡는데, 여기에 東南山의 칠불암 코스까지 추가함으로써 남산의 유일한 국보이자 그

18) 지도의 문화유산 앞에 붙인 번호는 <경주 남산> 편에서 답사 한 문화유산의 순서이면서 뒤에 표로 제시 한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설명 번호와 같다.

에 걸맞는 조형미를 갖추고 있는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그와 근접해 깎아지른 절벽에 새겨진 보물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도 빼놓지 않았다.

이 코스는 문화유산 답사에 한정되지 않고 힘준하면서도 아름다운 바위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이다. 西南山の 삼릉골에서 금오봉을 올라 용장사지에 이르기까지의 오르막과 능선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남산의 골짜기와 경주 시내 들판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東南山 골짜기의 우거진 숲길을 지나 다시 백운재를 거쳐 신선암에 오르면 남산에서 가장 깊숙한 골짜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경주 남산> 편에서는 남산이라는 자연공간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코스를 구성했다.

<경주 남산> 편은 특별출연한 미술사학자 유홍준의 안내와 설명이 프로그램 전체를 이끌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⁹⁾ 그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저술하여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 전 국토에 답사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대한 관심은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여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가용 보급으로 답사 여행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시대적 분위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절묘한 문장 구사와 항상 견지되고 있는 현재적 관심, 그리고 작가의 주관적인 평가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²⁰⁾

그래서 그가 경주 남산과 그 속에 자리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대중 친화적인 표현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문을 통해서 자신이 문화유산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 밝힌다. 1권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었고, 2권에서는 ‘문화유산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3권에서는 논리적 사변의 전개가 아니라 삶의 체취로 다가서보는 ‘문화유산의 생산과 소비자로서 인

19) 해피 선데이 <1박 2일> 시청자 게시판.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한 경주 답사여행 진심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니 지금까지 보았던 것도 새롭게 보이고 공부도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ks1337), 어제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며 애들과 보니 정말 이보다 더 유익한 예능프로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hi2son), 어제 1박 2일을 보고 유홍준 교수님의 맛깔나는 이야기에 다시금 경주가 가고 싶어졌습니다(najis80), 유홍준 교수의 구수한 문화유산 소개가 결합되면서 1박 2일이 가지고 있는 오락성과 공익성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freudeleid), 앞으로도 계속 유홍준과 함께하는 1박2일로 거듭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문화, 우리의 문화를 찾는 일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입니다(kcops73).

20) 김기덕, 『영상역사학』, 생각의 나무, 2005, 2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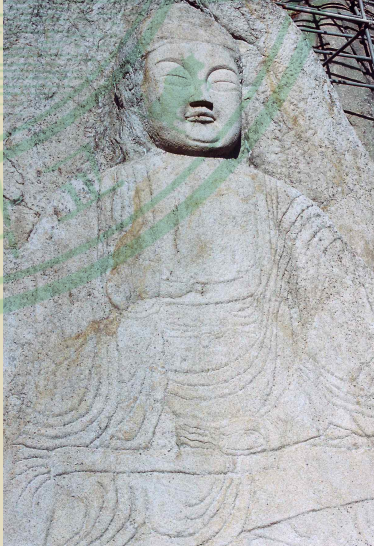
간의 이야기'이다.²¹⁾ 또한 그는 “작가가 어떤 생각에서 그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사회적 이슈는 무엇이었고, 조형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는가를 증언하면서 자신의 비평적 견해를 피력”하는 ‘비평적 증언’을 강조했다.²²⁾ 문화유산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의도는 경주 남산의 불상과 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바탕을 이루고 있다. 각각의 불상과 탑의 핵심적 내용 선정과 설명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설명 내용

문화유산	① 냉곡 석조여래좌상 (冷谷 石造如來坐像)	
주제	예술적 기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듭과 가사 끈의 섬세한 표현 ▪ 파불(破佛) 	
문화유산	②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 (三陵溪谷 線刻 六尊佛)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1호	
주제	인간의 삶과 문화유산, 장소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와 지붕 흙을 통해 본 선조들의 정성 ▪ 언덕 위 절벽 바위에 새긴 장소성 ▪ 부처와 연꽃의 의미 	

21)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창비, 2011, 10-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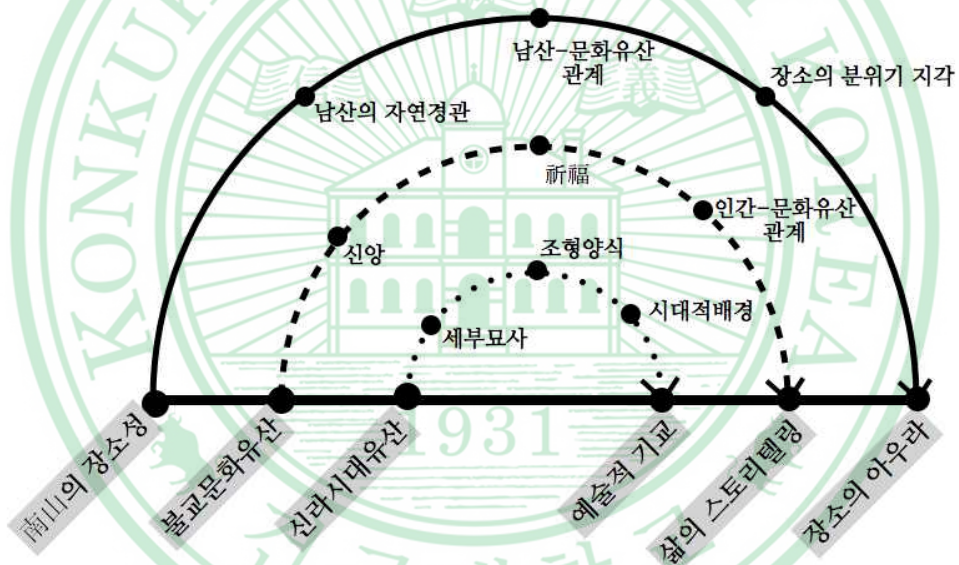
22) 유홍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강연, 김태형, 「인생계획에 없던 ‘답사기’, 이젠 사명감 느껴」, 한겨레, 2013. 11. 28.

문화유산	<p>③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三陵溪谷 線刻如來坐像)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p>	 <p>(경주남산연구소 제공)</p>
주제	시대적 분위기와 작가의 조형의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초 불상의 도전적 얼굴조각에서 본 조형 양식의 파격과 변형의 美 	
문화유산	<p>④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三陵溪 石造如來坐像) 보물 제666호</p>	
주제	문화유산의 복원방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되어 아픔을 간직한 불상의 복원과 문화유산의 두 가지 복원방식. ▪ 광배(光背) 	
문화유산	<p>⑤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p>	
주제	조형미, 장소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을새김과 선각을 조화시켜 새긴 마애불의 아름다움, 바위산 절벽에 새긴 장소성 ▪ 마애불(磨崖佛), 가부좌(跏趺坐) 	

	화강암 채석(採石) 흔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단단한 화강암을 채석하는 선조들의 지혜 	
문화유산	⑥ 용장사곡 삼층석탑 (葺長寺谷 三層石塔) 보물 제186호	
주제	작가의 조형의도, 장소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 : 산봉우리 자연암석을 하층기단으로 하여 산 전체를 탑의 기단으로 삼아 세운 삼층석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塔)과 기단(基壇) 	
문화유산	⑦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 (神仙庵 磨崖菩薩遊戲坐像) 보물 제199호	
주제	예술적 기교, 장소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을 완벽한 돌을새김으로 표현한 기교와 절벽암면에 새긴 장소성 ▪ 유희좌(遊戲坐) 	
문화유산	⑧ 칠불암 마애불상군 (七佛庵 磨崖佛像群) 국보 제312호	
주제	불상의 배치형태, 예술적 기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존불 앞 사망불의 독특한 배치 형태와 불상과 좌대 연꽃무늬의 입체적 돌을새김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체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았다. 각 문화유산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1~2개 정도만 선택하여 조형미와 상징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1~2개의 핵심 내용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을 선택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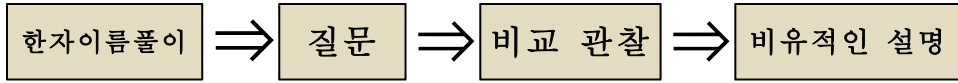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은 3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로는 남산이라는 공간 전체가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경주역사문화지구(Kyeongju Historic Area) 남산지구로 등재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로는 대부분이 불상, 탑, 절터로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다. 셋째로는 신라의 수도에 6~10세기에 조성된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이다.



<그림 2>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특징과 주제 도출

이와 같은 특징은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3가지의 주제 도출로 이어진다. 문화유산 자체뿐 만이 아니라 남산과 해당 문화유산이 가지는 관계성 그리고 남산이라는 자연 공간적 아름다움을 ‘장소의 아우라’를 통해 설명했다.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불교문화유산을 숭배하고 기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삶의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신라시대에 제작된 문화유산으로서 신라시대의 조형적 특징과 초기의 시원양식부터 예술작품의 완성도를 보이는 전성기 그리고

말기의 도전적 양식의 상호 비교와 설명을 위해 ‘예술적 기교’를 설명하였다.



<그림 3> 경주 남산 문화유산의 설명방식

위와 같은 설명은 주로 문화유산의 이름을 한자의 음과 뜻을 직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출연진에게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궁금증 유발임과 동시에 핵심 내용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화유산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모습을 이제까지 봤던 다른 문화유산과 비교하며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당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중국과 일본의 문화유산을 예로 들며 비교분석하여 설명한다. 비교의 목적은 서로의 차이를 통한 특징의 부각과 전체적인 시각으로 공간과 시간을 아우르며 문화유산을 이해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역사, 철학, 문학, 건축, 예술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결과 및 관련된 이야기를 인용하여 비유적으로 풀어낸다. 이러한 설명방식을 통해 해당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넓은 스펙트럼을 제시하고 대중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와 같이 질문법, 비교법, 비유법의 사용을 통해 수용자는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적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흥준의 설명 내용과 방식은 김동윤(2010)이 말한 예술과 연계된 인문적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문적 가치와 통한다. ‘성찰성, 통찰, 직관과 함께 심미적 감수성, 공감력을 포괄하는 진정으로 인문적인 성격. 이러한 감성적 가치와 인간적 능력은 창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예술과 연계된 인문적 교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²³⁾

또한 현재는 일상용어가 되어 많이 쓰이는 외래어를 설명 중간 중간에 사용하며 악센트를 준다. 예를 들면 리얼(real), 드라마틱(dramatic), 세트

23) 김동윤, 앞의 글, 434쪽.

(set), 풀(full), 퍼펙트(perfect), 플러스(plus)와 같은 표현들인데, 이는 듣는 이에게 친숙하면서도 전체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상징적인 어휘들로써 이해와 기억을 돕는다.



제1절 장소의 아우라

<경주 남산> 편에서는 경주 남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를 동시에 시각화함으로써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이 가지는 장소적 아름다움이 확대된다. 출연진들은 서남산 삼릉곡 아래에서 시작하여 정상의 금오봉을 오른 후 능선을 따라 용장계 탐상골 용장사지를 거쳐 동남산 백운재를 지나 칠불암으로 내려왔다. 이 코스는 오르막, 능선, 내리막이 이어지고 반복되며 역동적인 공간체함과 함께 불상과 탑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코스이다. 이와 같은 코스에서는 유사한 공간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며 점차 심화된다. 그리고 이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간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시선에 의해 연결된다. 각각의 문화유산 위치에서 보면 경주 시내 들판과 건너편 산봉우리와 계곡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불상과 탑이 있는 공간은 대체적으로 협소한 크기로 한정되어 있고, 주변공간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으며, 진입로도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허용하는 특징을 보인다.²⁴⁾

“형태는 장소를 반영한다.”²⁵⁾라는 말처럼 문화유산과 그 것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있다. 산을 넘고 절벽을 기어올라 불상이나 탑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에 진입했을 때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자리(場)’에서 이런 저런 기분을 느낀다는 일종의 공간적 분위기를 느낀다.”²⁶⁾

여기서는 공간(space)이 아닌 장소(place)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한데 장소는 환경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공간과는 차이가 있다. 공간은 대상이나 자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즉 정지해있는 어떤 대상의 좌표에 대한 것으로 그곳의 속성과 특성을 지극히 단순화시킨 표현으로써 공간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장소는 인간 및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주관적 차원에서의 해석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흔히 장소라고 할 경우에는 구체적

24) 정수진, 「경주 남산에 관한 연구-성스러운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131-138쪽.

25) Peter Zumthor, Atmosphären : Architektonische Umgebungen, die Dinge um mich herum, 장택수, 『페터 Zumthor 분위기』, 나무생각, 2013, 69쪽.

26) 김산춘, 「비메의 새로운 미학: 분위기와 감각학」, 『한국미학예술학회지』 통권 제30호, 한국미학예술학회, 2009, 225쪽.

인 지시대상을 가지고 있다.²⁷⁾

장소는 추상적인 위치(location)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질, 형상, 재질, 색 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totality)을 의미한다. 이들 사물들은 함께 모여 “환경의 성격(environment character)”, 즉 장소의 본질을 결정짓는다. 일반적으로 분위기(atmosphere)로서 주어지는데 이는 질적이고 총체적인(total) 현상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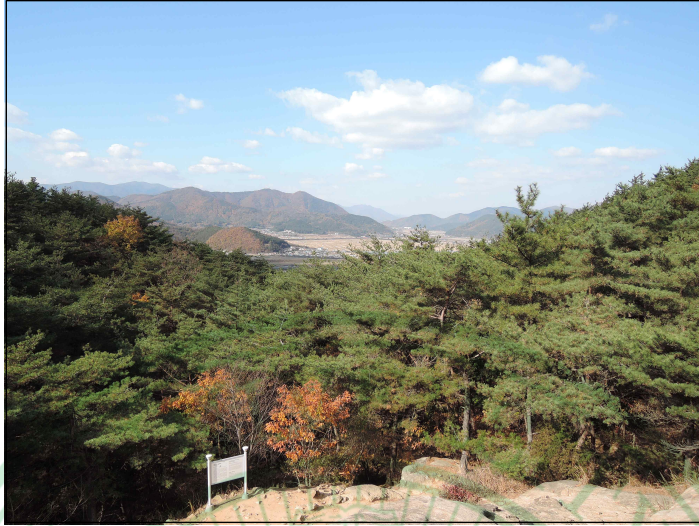
분위기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핵심개념 중에 하나인 ‘아우라(Aura)’와 일맥상통한다. 벤야민은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 즉 원본성(Originalität), 진품성(Echtheit)과 일회성(Einmaligkeit)²⁹⁾의 객관적 속성에서 나오는 아우라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체적 경험으로서의 아우라도 언급했는데 이는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⁰⁾ 즉 해당 문화유산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아우라가 있고, 그러한 아우라를 그 장소에 있음으로서 인간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아우라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여기서는 문화유산이 자리한 곳에서 지각되는 분위기를 ‘장소의 아우라’라고 하겠다.

27) 정수진, 앞의 글, 37쪽.

28)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민경호, 「場所의 魂」, 태림문화사, 1996, 11쪽.

29)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린비출판사, 2012, 46쪽.

30) “아우라란 무엇인가?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다. 어느 여름날 오후 휴식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지평선의 산맥이나 나뭇가지를 따라갈 때 이것은 우리가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숨 쉰다는 뜻이다.” - Benjamin, W., (Das)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최성만, 『발터 벤야민 선집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7. 5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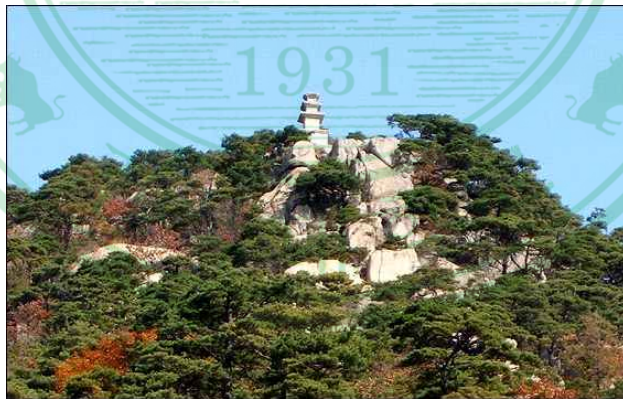
<그림 4-1> 육존불 바위 위에서 본 경관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三陵溪谷 線刻 六尊佛)은 언덕 위 평평한 공간에 있는 거대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숲이 우거진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주변 공간보다 높은 탁 트인 언덕 위에서 느껴지는 밝음과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경주의 들판과 산이 장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러한 장소의 아우라를 설명하기 위해 유홍준은 “부처님을 보는 것 보다 더 멋진 것이 부처님이 보는 곳을 보는 것이 더욱 멋있다.”라며 사람들을 육존불이 새겨진 바위 위 쪽으로 안내하여 감상하게 한다.



<그림 4-2> 상사암에서 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은 삼릉골 암봉 바위산 절벽에 새긴 마애불이며 오른쪽으로는 상사마위가 층층이 솟아있고 마애불 앞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수 있는 공간이 자그마하게 있으며 그 앞은 바로 낭떠러지이다. 그 곳에 서서 바라보면 금오산 정상과 숲이 우거진 골짜기의 모습이 보이고 넓게 펼쳐진 경주의 평야와 그 것을 에워싸고 있는 겹겹의 자그마한 산들이 내려다보인다.



<그림 4-3> 산 아래에서 본 용장사곡 삼층 석탑³¹⁾

용장사곡 삼층석탑(葺長寺谷 三層石塔)에 이르러서는 장소의 아우라가 최고조에 이른다. 유홍준은 “똑 같은 탑이 박물관 정원에 있다면 이런 감동

31) 경주남산연구소, <http://www.kjnamsan.org/>

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 山, 이곳에서 이 탑은 그 장엄한 가치를 지닌다.”
 라며 모든 유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에만 온전히 제 빛을 발할 수 있는³²⁾ 주
 변 환경과의 조화에서 오는 우리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장소의 아우라’를
 통해 설명한다.



<그림 4-4>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의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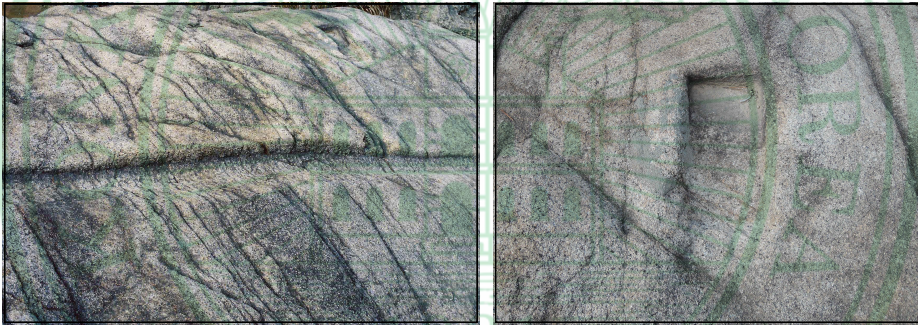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은 남산의 동쪽 깊숙한 골짜기인 봉화골 바위
 산 절벽암면에 새겨져 있다. 이 보살상은 구름을 타고 다니다가 여기에 앉
 아 잠시 쉬면서 중생을 굽어보는 듯 한 모습이다. 유홍준은 이 보살상을
 “퍼펙트(perfect)한 기교(技巧) 플러스(plus) 장소성”을 갖춘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하며 예술적 조형미뿐만 아니라 바위산 절벽에 새긴 장소의 아우라를
 강조한다.

이처럼 남산의 불상과 탑이 자리한 장소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를 설명함
 으로써 전체가 문화유산인 경주 남산의 특징과 불상과 탑을 통해 우리문화
 유산이 가지는 자연의 끌어안음, 자연의 연장(延長)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표
 현하였다.

32) 유홍준, 앞의 글, 5쪽.

제2절 삶의 스토리텔링

경주 남산에 자리한 문화유산은 불상과 탑이 주류를 이루는 불교문화유산이다. 인간이 숭배하고 기복(祈福)을 드리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현재와 유리된 문화유산을 일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명의 중심에 ‘인간의 삶’을 놓았다. 유홍준은 “사랑의 감정으로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나는 감히 국토박물관의 길눈이 되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토의 역사와 미학을 일상 속에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나누어 갖고 싶었다.”³³⁾ 며 문화유산이 삶과 괴리되어 박제화 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와 통찰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림 5-1> 육존불 위 배수로와 전실지붕 흔적

문화유산을 제작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때도 작가의 고민과 초인적 노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시키려는 민중들의 정성과 염원을 이야기한다.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三陵溪谷 線刻 六尊佛)이 새겨진 바위 위 흔적을 보며 “곳곳에 깊게 들어가 있는 인공적인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길쭉하게 패여 있는 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하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와 전실지붕 흔적을 통해 “옛 분들은 자기정성을 다 해서 부처님을 모셨다는 자취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크다.”라며 불상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선조들의 노력과 오늘날 우리들이 문화유산을 대하는 자세와 노력을 환기(喚起)시킨다.

33) 위의 글, 6-7쪽.

그리고 문화유산과의 교감을 강조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금 여기의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매개물로서의 기능도 강조했다. 특히 문화유산 그 자체가 지닌 조형미는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으로 보았다.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三陵溪谷 線刻如來坐像)의 소박하고 개성적인 얼굴조각에 “오히려 저 불상에 에너지를 더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며 시대 말기의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양식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이것에 인간의 감정을 연결시켜 설명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을 중심에 둔 문화유산의 해석은 내용뿐 아니라 그것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두드러진다.



<그림 5-2>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의 복원된 얼굴면

삼릉계 석조여래좌상(三陵溪 石造如來坐像)의 얼굴을 가리키며 예전에 복원해 놓은 이 불상의 얼굴은 시멘트로 대충 해 놓아 흉측했었다며 지금 복원된 “이 불상이 성형수술한 곳은 어디일까요?”라는 질문을 한다. 인간의 신체를 교정·회복시키는 단어인 ‘성형수술’이라는 용어를 ‘불상의 복원’이라는 말에 적용하여 좀 더 친근한 이해를 돕는다. 무생물인 돌을 깎아 만든 불상을 마치 생명을 가진 인간처럼 의인화(擬人化)시켜 불상의 훼손을 인간의 아픔으로, 그것의 복원을 인간의 신체적 복원으로 표현하며 문화유산을 인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당긴다.

제3절 예술적 기교

문화유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문화유산을 보았을 때 대부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여기에 전문가가 세부적인 묘사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는 작가의 고민, 주변과의 조화를 설명해 주면 수용자로서 일반인은 해당 문화유산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서 심화된 관찰의 단계로 올라간다. 그 이후 심미적 지각을 하면서 문화유산을 온전히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경주 남산> 편에서는 단단한 화강암을 기술적으로 깎고 다듬어 불상과 탑을 표현하고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 한 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솜씨를 설명한다. 작가의 시대정신을 담아 기술을 넘어서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작품의 탄생을 ‘예술적 기교(技巧)’로 설명하는 것이다.

경주는 신라의 유일한 수도이며 남산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6~10세기에 제작되었다. 남산에는 상대 신라부터 중대 신라 그리고 후대 신라에 제작된 문화유산이 모두 자리하고 있다. 신라시대 초기의 소박한 시원양식부터 전성기의 안정되고 세련된 양식 그리고 후기의 도전적인 양식까지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림 6-1> 냉곡 석조여래좌상의 가사 끈과 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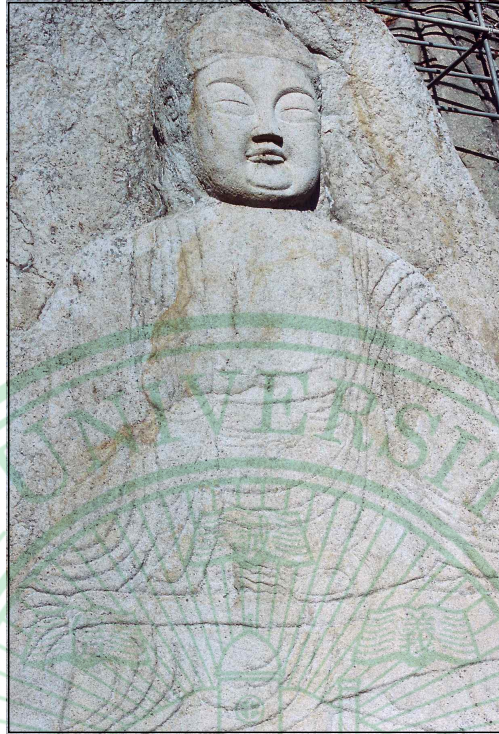
위 풍 당당한 모습의 냉곡 석조여래좌상(冷谷 石造如來坐像)을 설명하며 유홍준은 “매듭 리얼(real)하지?”라는 표현으로 단단한 화강암에 새긴 섬세한 매듭과 옷자락의 예술적 기교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6-2>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³⁴⁾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三陵溪谷 線刻如來坐像)의 얼굴 조각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특징을 설명하며 “전 시대의 다른 조각상처럼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으로 “너만 부처냐! 나도 부처다”라는 “과격적이고 개성적으로 돋보이고자 한 고려시대(신라 말기)의 불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불상이나 탑의 예술적 기교에서 정제된 전성기 양식과 말기의 도전적 양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며 둘 모두 아름답고 예술적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4) 사진제공, 경주남산연구소, <http://www.kjnamsan.org/>



<그림 6-3>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을 설명할 때 유홍준은 “우리가 보았던 다른 불상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으로 부처의 얼굴만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몸체는 半자연 半인공으로 배경의 바위산에 연결시켜³⁵⁾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형적 의도를 설명한다.

35) 윤경렬, 『경주 남산 거례의 땅 부처님 땅』, 불지사, 1993, 269쪽.



<그림 6-4> 용장사곡 삼층석탑

용장사곡 삼층석탑(茸長寺谷 三層石塔)은 “석가탑이나 감은사탑과 같이 신라 탑의 전형인 2층 기단을 만들지 않고 자연암석 위에 상층기단을 바로 만들어 아래쪽 기단은 산 전체가 되는 셈”이라며 용장사곡 삼층석탑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아닐까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러한 해석은 450년 또는 1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쌓아올렸다는 유럽지방의 고딕사원의 첨탑(尖塔)들처럼 장엄한 느낌을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 쉽게 나타낸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치³⁶⁾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천연의 조건에다 인공적 요소를 가미해 석탑을 만든 작가의 숨씨를 예술적 기교로 설명했다.

36)위의 글, 196쪽.



<그림 6-5>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神仙庵 磨崖菩薩遊戲坐像)은 “이것은 불상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들어있는 불상을 찾아낸 것이다.”라는 인용구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니 부처가 나타난 것이다.”라며 감실처럼 절벽의 바위 면을 얇게 파내어 부조로 세밀하게 표현한 조각의 아름다움을 설명한다. 또한 절벽 암면에 묘사된 구름무늬는 앞으로 펼쳐지는 자연경관과 어울려 불상이 마치 구름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그 조형미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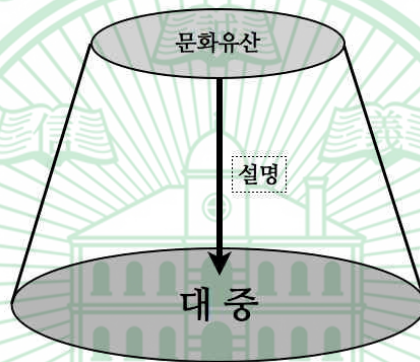
<그림 6-6> 칠불암 마애불상군 본존불 좌대의 연꽃무늬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로써 뛰어난 예술적 기교를 보이는 칠불암 마애불상군(七佛庵 磨崖佛像群)에서는 불상이 자리한 좌대의 연꽃무늬를 가리키며 “연꽃이 상투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각도를 주면서 흰 방향대로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정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삼존불의 협시불도 본존불을 향해 방향을 약간 틀어 중앙을 바라보도록 표현했다는 세부적인 모습을 안내하며 문화유산의 예술적 기교를 설명한다.

남산에 자리한 문화유산의 특징에서 비롯된 ‘장소의 아우라’, ‘삶의 스토리텔링’, ‘예술적 기교’라는 주제는 아름다움(美), 인간(人), 세상(世)에 대한 오늘날의 의미부여로 이어진다. 지금 여기를 사는 일상적 삶에 아름다움을 흐르게 하고 그것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지는 순환적 리듬을 문화유산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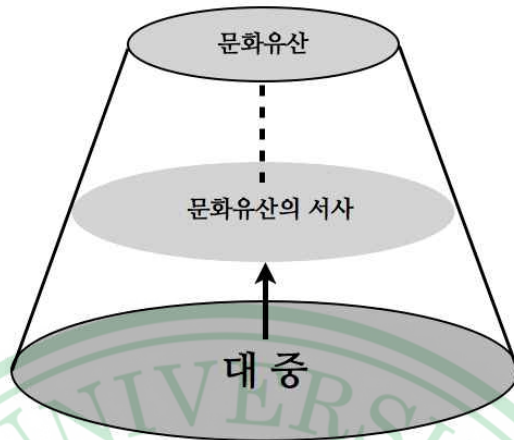
제3장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활용전략

기존 다큐와 같은 장르에서 문화유산을 표현하는 방식은 전문가인 화자가 TV를 보고 있을 대중이라는 수용자에게 직접 설명 하는 구조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중들이 마치 TV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처럼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주체성이 결여된 수용자로 전락하고 만다. 주체성이 결여된 수용자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나 즐거움을 느낄 겨를이 없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바쁘다.



<그림 7-1> 문화유산의 직접 설명

그러나 《1박 2일》<경주 남산> 편에서는 미술사학자이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인 유홍준이 연예인들과 함께 경주 남산을 답사하면서 연예인들에게 문화유산을 설명한다. 그리고 대중은 시청자로서 유홍준과 연예인들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만들어내는 서사를 감상하였다. 대중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서사를 감상하면서 일방적으로 듣는 수용자가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내용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몰입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수용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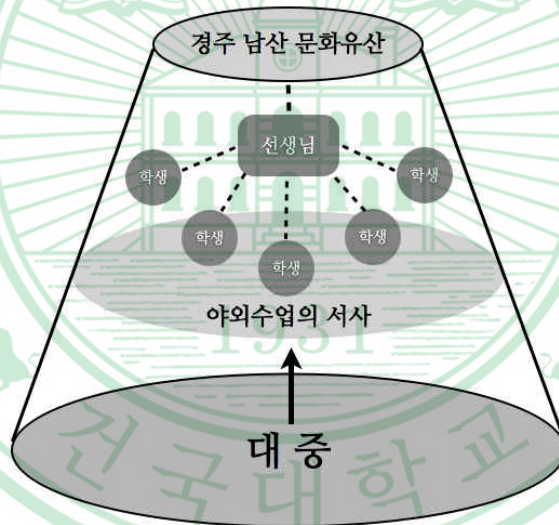


<그림 7-2>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서사

대중이 기존 다큐와 같은 장르에서 본 것이 ‘문화유산’이었다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1박 2일》 <경주 남산> 편에서 본 것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서사’를 본 것이다. 대중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즐기면서 본 것이다. 문화유산 ‘설명을 듣는 대중’이 아닌 문화유산 ‘서사를 보는 대중’으로 표현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상품의 광고와 비슷하다. 제품의 내용과 효능, 효과를 대중이라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소재로 한 서사를 만들어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품을 소재로 한 재밌고 감동적인 서사를 보고 대중은 그 제품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제1절 야외수업의 서사 구성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1박 2일》의 기본 구성은 1박 2일 동안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작은 서사들은 실제상황에서 출연진 각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간다. <경주 남산> 편에서는 답사 여행이라는 서사 구조를 정해놓고 문화유산 전문가인 유홍준 교수가 특별출연하여 연예인들과 함께 남산을 답사하였다. 유홍준 교수는 프로그램 안에서 문화유산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되고, 연예인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학생이 되었다. 즉 선생님과 학생이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문화유산 수업이 이루어지는 ‘야외수업의 서사’를 구성하였다.



<그림 8> 야외수업의 서사

서사의 배경은 경주 남산 삼릉골부터 칠불암까지의 주요 불상과 탑 주변, 등장인물은 선생님(전문가 유홍준), 학생 5명(연예인 김종민, 은지원, 엄태웅, 이수근, 이승기)이다. 캐릭터는 평소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모범생(이승기), 엉뚱한 학생(김종민), 성실한 학생(엄태웅), 평범한 학생(이수근)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에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은지원이 문화유산 퀴즈를 잘 맞히고 이해를 잘해 우수학생 이미지로 변하는 의외성을 보인다. 인물들이

펼치는 사건은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앞에서 선생님의 설명과 학생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야외수업의 서사 전개는 학생이 문화유산을 대면하며 첫인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냉곡 석조여래좌상(冷谷 石造如來坐像)에서는 “불상에 머리가 없네요?”, “큰 바위를 그대로 깎았네요.”라고 말한다.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三陵溪谷 線刻 六尊佛)에 대해서도 “바위에다가 그린 것처럼 나왔어요!”, “양쪽 바위에 부처님이 3분씩 여섯 분이 있어.”라며 외형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한다. 그러다가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三陵溪谷 線刻 如來坐像)부터는 자신의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불상의 얼굴을 보며 “외모가 외국인 느낌이다.”, “얼굴에 살이 좀 찌셨다.”라던가 삼릉계 석조여래좌상(三陵溪 石造如來坐像)에 대해서는 “이 불상은 정교해!”라는 표현을 한다.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에서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가장 큰 스케일과 입체감”이라며 압축적 표현과 함께 “우리나라 부처님은 조금 통통하신 것 같아요”라는 비교 관찰에서 비롯된 표현을 한다. 용장사곡 삼층석탑(葺長寺谷 三層石塔)에서는 “석탑 앞으로 펼쳐지는 풍광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위치에 석탑을 만들었지?”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공간에 대한 감상도 표현한다.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神仙庵 磨崖菩薩遊戲坐像)에서는 “여기 서 있으면 부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라며 문화유산을 자신의 존재로 끌어와 표현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라며 문화유산을 만든 작가의 노력에 대한 생각까지 미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七佛庵 磨崖佛像群)은 “신선암 불상보다 입체감이 더욱 심하다.”, “지금까지 봤던 불상보다 가장 입체적이고 가장 디테일 한 것 같아요.”라며 문화유산의 비교 관찰에서 비롯된 감상을 표현한다.

이렇듯 학생이 문화유산을 보며 표현하는 내용이 점점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외형묘사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묘사와 문화유산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도 함께 표현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문화유산과의 비교 관찰과 문화유산을 통한 자신의 감정의 변화까지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수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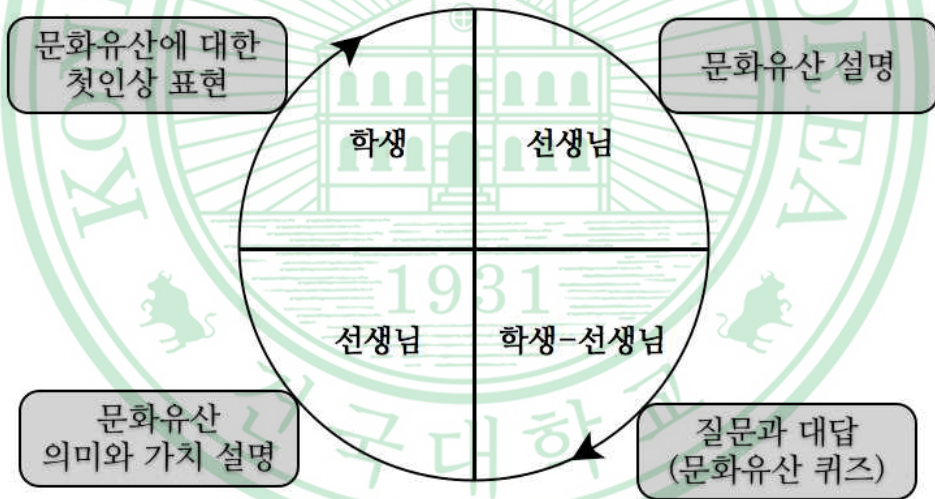
이러한 학생의 첫인상 표현 후에는 선생님의 문화유산 내용 설명이 이어진다. 내용 설명은 앞에 분석 했듯이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 특징에서 도출한 ‘장소의 아우라’, ‘삶의 스토리텔링’, ‘예술적 기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동기유발 및 내용 정리를 위해 문화유산 퀴즈를 낸다. 각 문화유산 별로 1~3개 정도의 퀴즈를 내고 학생의 오답을 정정해주고, 답을 풀이해주고, 퀴즈와 문화유산의 특징을 연결시켜 정리한다. 퀴즈를 맞힌 보상으로 받은 상금은 이후에 점심 도시락을 사먹을 수 있는 돈으로 쓰이기에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임하며 이러한 모습은 놀이의 형태를 띠며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표 2> <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퀴즈

문화유산	질문	정답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 (三陵溪谷 線刻 六尊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애삼존상에서 부처를 가운데 둔 보살상 두 분이 부처님에게 바치던 것은 무엇일까요? ▪ 선각 육존불 위 곳곳에 깊게 들어가 있는 인공적인 구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 선각 육존불 위 길쭉하게 패여있는 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꽃 ▪ 과거 육존불 위 前室기와지붕 서까래를 꽂았던 자리 ▪ 육존불을 보호하기 위한 배수로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三陵溪谷 線刻如來坐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각을 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격적이고 개성적으로 돋보이고자 한 고려시대의 불상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三陵溪 石造如來坐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연 이 불상이 성형한 곳은 어디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상의 얼굴 아래쪽 부분 전체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이 기존 다른 불상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통은 선각이고 얼굴은 부조로 조각함

화강암 채석(採石)	▪ 바위 끝에 톱니무늬가 생긴 이유는?	▪ 자연의 힘으로 채석하기 위한 흔적
용장사곡 삼층석탑 (茸長寺谷 三層石塔)	▪ 삼층석탑의 2층 부분은 어디일까요?	▪ 아래 기단 이후부터 1층, 2층, 3층
칠불암 마애불상군 (七佛庵 磨崖佛像群)	▪ 칠불암에 부처상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까?	▪ 삼존불은 뒷면 병풍바위에 四面 석불상은 병풍바위 앞 사각 돌기둥에 각 한 면씩 조각되어 있음

이 후 내용 정리와 함께 문화유산과 인간의 관계를 통한 오늘날의 의미 부여로 설명을 마무리한다. 즉, 야외수업의 서사는 문화유산에 대한 학생의 첫인상 표현, 선생님의 문화유산 설명,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 질문과 대답 그리고 선생님의 문화유산 의미와 가치 설명이 순환하며 전개된다.



<그림 9> 야외수업의 서사 전개 과정

이와 함께 야외 수업 분위기 연출을 위해 걷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선생님,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일상적 대화와 학생들 개개인이 사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길을 걸어요(권진원)’, ‘소풍(도로서 밴드)’과 같은 배경음악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쾌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제2절 TV 자막을 이용한 서사 내용 설명

<경주 남산> 편에서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야외수업의 서사를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는 수용 주체로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야외수업의 서사라는 큰 틀의 서사 구조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출연진들이 문화유산을 소재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화하며 작은 서사들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서사를 즉흥적으로 만들며 비선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 할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미 중 생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대중이 주체성을 가진 수용자가 되면 프로그램 의도와는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의 서사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PD는 편집과정에서 서사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여 자막과 영상으로 보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PD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흐름을 이어주기도 하고 출연자나 상황에 대한 논평을 가하기도 한다.³⁷⁾ 즉 야외수업의 서사에서 빠진 문화유산의 내용을 보충하고 PD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시청자와 공모 의식, 연대감을 형성해 프로그램과 대중의 연결을 시도한다. 이것은 일종의 텍스트 안으로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한 현실성 구축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텍스트 내에 개입하여 쌍방향적으로 그것과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게 함으로써 현실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³⁸⁾

먼저 서사의 배경을 자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경주 남산 삼릉계곡 초입의 송림 숲을 걷는 장면에서는 ‘눈부신 아침햇살 아래 걷는 천년고도의 숨결이 자리한 소나무 숲’, ‘세월만큼 질긴 소나무들이 하늘까지 뻗뻗이 들어차 굽어보는 곳’이라 표현하였다. 삼릉 송림에서 냉곡 석조여래좌상(冷谷 石造如來坐像)으로 이르는 길은 ‘삼릉을 지나 본격 오르막 산길이 시작되고 싱그러운 산 공기가 몸을 감싸오고, 이윽고 탁 트인 공간이 등장하고 남산에서 처음 만나는 불상’이라고 표현하였다.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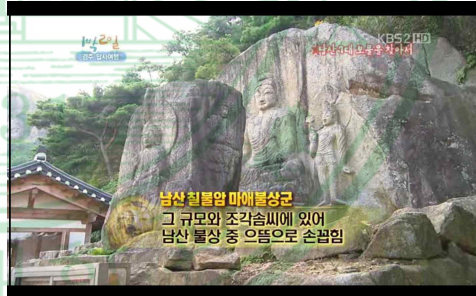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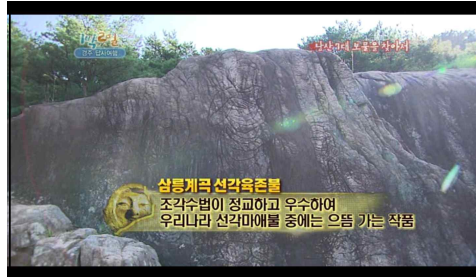
37) 김중신, 앞의 글, 56쪽.

38) 옥민혜, 박동숙, 앞의 글, 100쪽.

陵溪谷 線刻 六尊佛)로 가는 길은 ‘남산 제1대 보물로 가는 마지막 오르막 길, 길고 긴 나무그늘 오르막의 끝 드디어 쏟아지는 빛줄기’라며 언덕 위에 위치하여 탁 트인 전경과 햇살을 받는 장소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용장사곡 삼층석탑(茸長寺谷 三層石塔)은 ‘석탑 앞으로 펼쳐지는 풍경, 저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사’라며 산봉우리에 자리 잡은 장소적 배경을 표현하였다. 산정호수에서는 ‘그렇게 다들 조금씩 지쳐가던 중 산 중턱의 작은 저수지 발견! 신기하게도 지칠 때 나타나는 산속의 작은 습터’라며 긴 산행에 지친 출연진들의 마음과 배경을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神仙庵 磨崖菩薩遊戯坐像)은 다른 문화유산 보다 훨씬 많은 자막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아찔한 경치, 깎아지른 절벽 위 어느덧 해는 누엣누엣 심상치 않은 바람소리, 해질녘 탁 트인 풍경, 이 바위면 돌아 들어가면 도착, 절벽 위에서 만난 감동 그리고 그 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라며 자막만으로도 그 장소의 배경이 상상이 갈 정도로 세부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서사의 주요 사건이자 내용인 문화유산의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문화유산의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대면할 때 마다 짧은 소개 영상을 자막과 함께 제시한다.



<그림 10-1> 경주 남산 문화유산의 요약적 설명 장면

<표 3> 경주 남산 문화유산의 소개 자막

문화유산	자막 내용
경주 남산	경상북도 경주시의 남쪽에 위치한 산. 고위산(494m)과 금오산(468m) 2개의 봉우리가 솟아있음. 산속에 80여기의 불상과 70여기의 석탑 110여개 소의 절터가 산재해 있는 노천박물관. 금오산이라고도 하며 김시습이 이곳에서 ‘금오신화’를 쓴 것으로 유명.
냉곡 석조여래좌상 (冷谷 石造如來坐像)	높이 1.6m에 이르는 큰 좌불. 계곡에 묻혀있던 것이 1960년대에 발견되어 지금 장소에 놓였다. 불두(머리)와 손이 유실된 상태지만 섬세하게 표현된 가사끈과 매듭의 형태가 돋보인다.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 (三陵溪谷 線刻 六尊佛)	자연 암벽의 양쪽에 각각 마애삼존상을 선으로 조각한 6존상.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우수하여 우리나라 선각 마애불 중에는 으뜸가는 작품.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三陵溪谷 線刻如來坐像)	남산에서 가장 늦은 시기인 고려 초기 즉 10세기 중엽 작품으로 추측. 몸은 모두 선으로 그은 듯이 새기고 얼굴만 도드라지게 표현한 독특한 조각수법. 가까운 두 눈, 긴 코, 두터운 입술로 균형 잡힌 얼굴은 아니지만 소박한 위엄이 있음.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三陵溪 石造如來坐像)	불상의 얼굴은 떨어져있고 불상 뒤의 광배가 깨진 채로 발견. 눈은 반쯤 뜨고 눈썹은 반달모양으로 아름다워 자비로운 미소가 돋보임. 보수한 흔적이 뚜렷해 더욱 안타까운 불상. 입체적이고 육감적인 곡선미가 돋보이는 유산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	남산 종주길 중 가장 크고 조각이 우수한 불상. 벼랑을 깎아 만든 높이 5.2m, 무릎 폭 3.5m의 대불좌상.
용장사곡 삼층석탑 (葺長寺谷 三層石塔)	용장사 터 능선위에 자리하여 계곡 어디서나 볼 수 있다. 200m 산을 거느린 4.5m 삼층석탑.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 (神仙庵 磨崖菩薩遊戲坐像)	절벽 바위의 우측에 새겨진 높이 1.4m의 불상. 두 눈은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긴 모습.
칠불암 마애불상군 (七佛庵 磨崖佛像群)	바위에 새긴 세 불상과 그 앞에 사각으로 새긴 네 불상을 합쳐 칠불이라 함. 그 규모와 조각솜씨에 있어 남산 불상 중 으뜸으로 손꼽힘.

또한 컴퓨터 그래픽과 만화적 표현을 통한 재현으로 서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충하였다.



<그림 10-2> 컴퓨터 그래픽과 만화적 표현을 통한 재현

‘가장 좋은 문화 답사는 좋은 선생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라며 문화유산에 대한 PD의 주관적 감상을 자막으로 표현한다.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三陵溪谷 線刻 六尊佛)은 ‘자연 암벽에 펼쳐진 보물’이라고 첫 인상을 표현한 뒤, 바위 위에서 바라본 전경 장면에서는 ‘부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는 따뜻한 부처의 마음이 전해오는 듯’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바위 위 배수로 흔적은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남아있는 정성을 다했던 선조들의 자취,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흔적’이라며 자신의 감상평을 덧붙인다.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三陵溪谷 線刻如來坐像)은 ‘이유 있는 파격’이라고 평가하고, 삼릉계 석조여래좌상(三陵溪 石造如來坐像)은 ‘소나무 숲 햇살 아래 곱게 가부좌를 튼 불상’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은 ‘꼬불꼬불 가파른 등산길 그 길에 지칠 때 만난 신라의 미소, 시원한 전망을 거느리고 자애롭게 지켜보다’라며 조형미와 공간적 분위기에서 오는 편안한 감정을 이야기한다. 용장사곡 삼층석탑(葺長寺谷 三層石塔)은 ‘1,000년도 훨씬 전 어느 석공이

쪼갠 돌을 날라 여기 용장사 탑을 세웠다. 절간도 사라지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탑은 여전히 남아 1,000년 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설명을 한다. 신선암 마애보살유희좌상(神仙庵 磨崖菩薩遊戲坐像)은 ‘숨넘어가는 경치, 두 눈은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긴 모습, 비록 불상은 구름 위에 있지만 그의 얼굴은 중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장소적 분위기와 불상의 외형적 묘사를 함께 표현 하고, ‘1,400년 전 신라의 이름 모를 석공은 무엇 때문에 이 높은 곳까지 올라 이처럼 단단한 바위에 불상을 그려나간 것인지……. 우리가 두 발로 걸으며 만나고자 하는 것은 석탑이나 불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낸 선조들의 마음입니다’라며 문화유산에 대한 자신의 주제 의식이면서 프로그램의 주제를 피력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七佛庵 磨崖佛像群)은 ‘신라 불교 미술의 최전성기인 8세기 초기 작품. 압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이라는 설명과 함께 ‘규모가 웅장하면서도 세부묘사가 탁월’이라며 문화유산 수업의 설명에 응답하며 자신의 감상평을 표현한다.

또한 서사의 등장인물인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사 전달과 행동을 자막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면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三陵溪谷 磨崖石迦如來坐像)은 ‘저절로 합장하게 되는 위엄’이라며 출연진의 행동을 묘사한다. 화강암을 채석(採石)한 흔적을 보며 ‘조상이 남긴 정교한 흔적’, ‘밭길에 채이던 돌덩어리가 특별하게 다가오고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며 출연진의 행동을 해석한다. 그리고 용장사곡 삼층석탑(茸長寺谷 三層石塔)은 ‘보물을 찾으러 간 골짜기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만나다’라는 출연진의 감정을 묘사하며 서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PD의 해석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적인 해석이 아니라 대중적 수준의 지식과 감성, 해석력을 가진 친구 같은 서술주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똑똑한 친구와 소파에 앉아 TV를 함께 보며 TV의 내용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듯이 말이다.

이와 같이 서사의 배경과 사건, 인물을 설명, 해석하고 야외수업의 서사 전체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자막으로 제시한다. ‘여행은 이제 시작이다. 경주 남산에 숨겨진 7개의 보물을 찾는 대장정’ 등의 표현으로 야외수업의 서사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돕는다.

제3절 <경주 남산> 편의 서사와 문화유산의 표현방식

문화유산의 가장 좋은 표현방식은 문화유산의 가장 좋은 이해 방법과 통한다. 전문가와 문화유산을 함께 찾아다니며 직접 관찰하고, 전문가의 설명과 해석을 듣고, 자신의 감상과 물음을 표현하는 것이 문화유산 이해의 좋은 방법이다.

《1박 2일》<경주 남산> 편의 문화유산 표현방식은 위와 같은 이해의 과정을 충실히 보여준다. 문화유산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경주 남산에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며 선생님의 설명과 해석을 듣는다. 그러면서 문화유산을 직접 관찰하고 대면하며 느끼는 감정과 물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리고 선생님의 대답과 질문에 응답하며 문화유산을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교실 밖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체험하며 공부하는 ‘야외수업’의 모습이며 이를 구성하여 표현한 프로그램의 서사는 ‘야외수업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중요한 표현방식인 자막을 통해 서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서술자가 등장한다. 자막은 영상으로만 전달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PD의 편집의도에 따라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또 하나의 서술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³⁹⁾ 이를 통해 시청자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서사를 더욱 잘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막 뿐 아니라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포맷과 여러 요소들은 문화유산의 이해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포맷은 현장에서 출연진들에게 도전 과제가 주어지고 출연진들은 과제 해결을 위해 주변 환경을 이용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이와 같이 실제상황에서 벌어지는 도전과 체험중심의 포맷은 문화유산 이해를 위해 직접 보고 관찰하며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통하며 이러한 특성은 <경주 남산> 편에서 답사여행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김미라(2008)는 서사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같은 텍스트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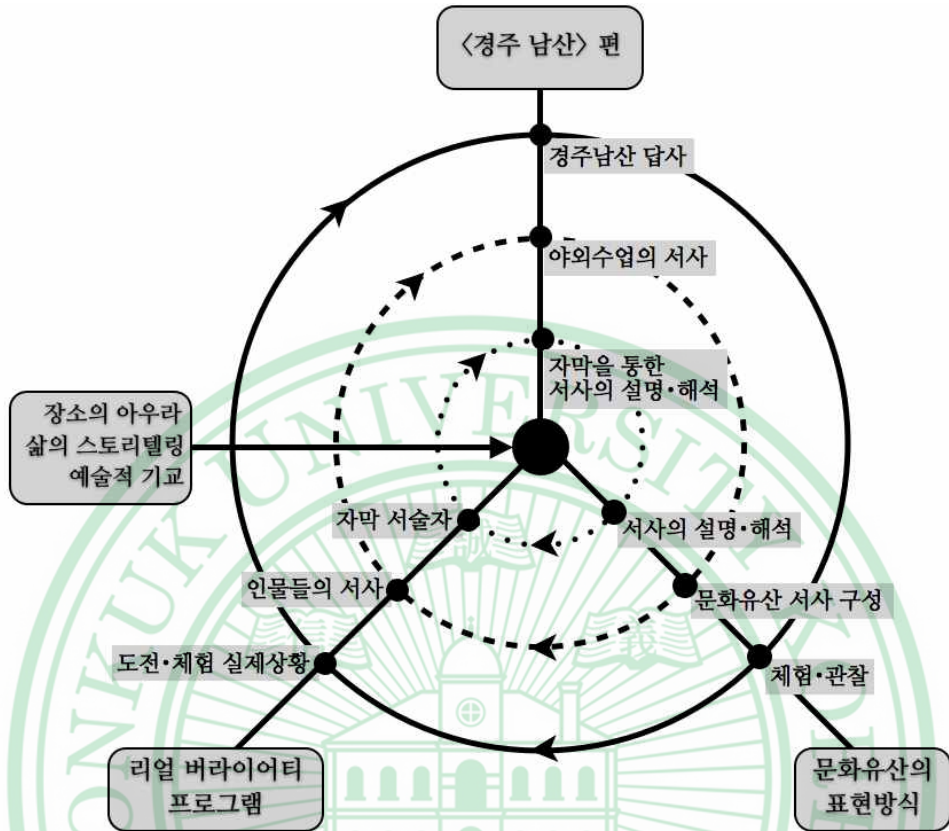
39) 김중신, 앞의 글, 53쪽.

인물의 매력과 개성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큰 이야기 틀은 연출자가 정해놓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이야기는 인물들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출연자들의 행동기준은 연출자의 의도가 아닌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정해진 대본이 없고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자 출연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합의되는 방향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채워지게 된다.⁴¹⁾ 그래서 인물, 즉 캐릭터가 중요한 ‘캐릭터 쇼(Character Show)’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물들은 드라마나 다른 예능 프로그램 또는 영화에서의 자신의 이미지와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이미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든다. 이러한 캐릭터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며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경주 남산> 편 ‘야외수업의 서사’에서 선생님이로 등장하는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총 300만부(2012년 기준) 이상이 팔린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서 대중들에게 문화유산 답사 열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전문적인 문화유산 지식을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즉 캐릭터 자체가 문화유산의 대중 친화적 표현 매체이다. 그리고 학생으로 등장하는 연예인들은 가수, 영화배우, 개그맨으로서 각자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문화유산을 대면하며 감상을 표현하고, 설명을 듣고 물음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는 문화유산 전문가의 설명과 해석을 듣고 수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감상과 궁금증을 표현하는 문화유산의 이해과정과 닮았다. 그리고 이들이 문화유산을 대면하며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인물중심의 서사 구성과 통한다.

40) 김미라, 앞의 글, 154쪽.

41) 장용호, 노동렬,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조직화에 관한 연구: <1박 2일>과 <무한도전>의 창의적 생산방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1권 2호, 문화방송, 2010, 64쪽.



<그림 11>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 문화유산의 표현방식

정리하자면 경주 남산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 주제인 ‘장소의 아우라’, ‘삶의 스토리텔링’, ‘예술적 기교’를 중심으로 ‘야외수업의 서사’가 표현되었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포맷인 도전과 체험 중심의 실제상황은 체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과 통하며 이는 <경주 남산> 편에서 답사로 표현되었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큰 이야기 틀 안에서 출연진들이 상호작용하며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인물들의 서사는 <경주 남산> 편에서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캐릭터로 ‘야외수업의 서사’로 표현되었다. 자막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하고 상황을 설명·해석하는 서술자의 역할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주요 표현 방식이며 <경주 남산> 편에서는 자막을 통해 서사의 배경인 남산과 출연진의 말과 행동, 야외 수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하며 문화유산을 표현하였다.

제4장 맺음말

본 글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KBS 2TV 《1박 2일》에서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경주 남산> 편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대중 친화적인 표현방식을 연구한 글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경주 역사유적지구인 남산은 동서 4km, 남북 10km의 타원형 모양이며 43개의 골짜기에 694개의 유적·유물이 있는 곳이다.⁴²⁾ 이렇게 방대한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를 《1박 2일》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기획하여 답사(촬영)코스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남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볼 수 있으면서도 그 것이 자리잡은 역동적인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했다. 그 코스는 西南山の 삼릉골을 시작으로 금오봉을 올라 능선을 따라 용장계 탐상골의 용장사지를 거쳐 東南山 봉화골의 칠불암으로 하산하는 코스이다.

산의 여러 곳에 신라시대 조성된 탑과 불상 그리고 절터 등 불교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은 山에 자리한 장소성, 불교문화유산, 신라시대유산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山에 자리한 장소성은 개별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남산과 해당 문화유산이 가지는 관계성 그리고 남산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장소의 아우라’로 설명한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기복(祈福)과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던 불교 문화유산의 특징을 우리네 삶과 연결하여 인간의 삶과 문화유산의 관계성을 ‘삶의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다. 또한 신라시대 문화유산의 세부적인 묘사와 상징적 표현, 작가의 고민과 노력으로 탄생한 조형미와 양식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예술적 기교’를 설명한다. 이러한 주제는 아름다움(美), 인간(人), 세상(世)에 대한 오늘날의 의미부여로 이어져 오늘날의 가치와 의미로 설명되었다.

특별출연한 미술사학자 유홍준의 설명 방식은 문화유산의 한자이름풀이로 시작하여 계속되는 질문으로 수용자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문화유산을 관찰하며 다른 문화유산과의 비

42) 경주남산연구소, <http://www.kjnamsan.org/>

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자극한다. 표현에 있어서도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한다. 그런 후 역사, 철학, 문학, 건축, 예술 등의 학문 분야의 연구결과 및 관련된 이야기를 인용하여 비유적 설명으로 마무리 한다.

<경주 남산> 편에서 유홍준 교수는 프로그램 안에서 문화유산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연예인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학생이 되었다. 즉 선생님과 학생이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문화유산 수업이 이루어지는 ‘야외수업의 서사’를 구성하였다. 서사의 배경은 경주 남산 삼릉골 부터 칠불암까지의 주요 불상과 탑 주변, 등장인물은 선생님(전문가 유홍준), 학생 5명(연예인 김종민, 은지원, 엄태웅, 이수근, 이승기)이다. 주요 사건은 경주 남산의 탑과 불상 앞에서 선생님의 설명과 학생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이와 같이 <경주 남산> 편에서는 야외수업의 서사를 구성한 후 서사의 내용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막과 부연설명 영상을 활용하였다. 서사의 배경과 주요 사건인 문화유산의 수업 내용을 자막을 통해 설명하고 서사의 앞과 끝에 짧은 소개 영상으로 정리한다. 또한 등장인물인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사 전달과 행동을 자막으로 묘사한다. 사실적 설명 뿐만 아니라 서사의 전체적 내용과 인물의 행동에 대한 PD의 해석을 자막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청자와의 공감대 형성과 몰입을 유도한다.

경주 남산을 답사하며 체험과 관찰을 통한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은 도전과 체험 중심의 실제상황이라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포맷과 통한다. 그리고 캐릭터성이 분명한 미술사학자 유홍준과 연예인들의 표현은 야외수업의 서사로 구성되었다. 인물들이 자신의 감상과 물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은 문화유산의 이해 과정과 닮았고 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특징인 인물들의 서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 여기에 시청자의 내용 이해와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막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주요 표현방식이 문화유산 이해의 과정을 보완하였다. 이렇듯 문화유산의 표현방식은 문화유산의 이해의 과정과 맞닿아 있다.

문화유산은 과거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나 시대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데⁴³⁾ 그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시대적 분위기의 차이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연결하여 풀이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되돌려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유산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문화유산과 삶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이입을 통한 몰입, 그것을 통한 이해에 효과적이다.

오늘날 이른바 문화의 시대에 더 세련되고 고급스런 문화콘텐츠에 대한 열망이 커가고 있는 것은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미적 충동, 시각적 쾌락과 무관하지 않다. 미적 충동은 심미적 취향은 공감(Empathy, Einfühlung)의 원천이다. 감성사회는 공감의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공감의 문명에서 핵심은 호모 에스테티쿠스(Homo Aestheticus)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정신인 것이다.⁴⁴⁾

문화유산은 오래되었고 형태적으로도 오늘날 볼 수 있는 모습과는 다르지만 가치와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려 노력하는 자세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자세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동의하는 가장 전형적 방법은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다.⁴⁵⁾ 문화유산 뿐 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는 것이기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배움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통문화유산이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 있는 것”이다. 剝製되고 고정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우리의 삶에 맞추어 시대의 기운을 담아 계속 진화해 나가야 한다. 전통문화유산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활용의 가치이자 목표이다.

43) 강우방, 앞의 글, 14쪽.

44) 김동윤, 앞의 글, 433쪽.

45) 김우창, 문광훈, 『세 개의 동그라미』, 한길사, 2008, 495쪽.

참 고 문 헌

<동양문헌>

- 강우방, 『慶州南山』, 열화당, 1991.
- 김기덕, 『영상역사학』, 생각의 나무, 2005.
- 김기덕, 『한국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2007.
- 김기란, 최기호, 『대중문화 사전』, 현실문화연구, 2009.
- 김우창, 문광훈, 『세 개의 동그라미』, 한길사, 2008.
- 김원용, 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공사, 2003.
- 박홍국, 『신라의 마음 경주남산』, 한길아트, 2002.
-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린비출판사, 2012.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남도답사일번지』, 창비, 2011.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 : 산은 강을 넘지 못하고』, 창비, 2011.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창비, 2011.
-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1 : 선사·삼국·발해』, 놀와, 2010.
-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2 : 통일신라·고려』, 놀와, 2012.
- 윤경열, 『慶州南山古蹟巡禮』, 경주시, 1979.
- 『경주 남산(하나)』, 대원사, 1989.
- 『경주 남산(둘)』, 대원사, 1989.
- 『경주 남산 겨례의 땅 부처님 땅』, 불지사, 1993.
- 이강수, 『수용자론』, 한울아카데미, 2001.
- 이우정, 『진짜 아날로그 여행 1박 2일』, (주)알에이치코리아, 2013.
- 최광식, 『한류로드』, 나남, 2013.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2·경주』, 돌베개, 1994.

- 김기덕 外, 「한국 세계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융복합 문화콘텐츠 정책사업 제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2012-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 김동윤, 「창조적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창발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 연구」, 『인문콘텐츠』 제19호, 2010.
- 김대현, 「디지털 시대의 콜로세움 :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진화」, 『플랫폼』 통권 제31호, 인천문화재단, 2012.
- 김미라,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67호, 한국방송학회, 2008.
- 김산춘, 「비매의 새로운 미학: 분위기와 감각학」, 『한국미학예술학회지』 통권 제30호, 한국미학예술학회, 2009.
- 김중신, 「TV 자막 언어의 서사성과 의미에 관한 연구 - 리얼 프로그램 <1박 2일>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2호, 한국독서학회, 2009.
- 권길호, 「TV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유형 분류 연구 - <1박 2일>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31집, 우리말글학회, 2012.
- 옥민혜, 박동숙, 「‘오락적 현실감’ 작동 방식과 상호텍스트성: 리얼 버라이어티 쇼 수용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1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 이병민,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략과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25집 1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이병민, 「콘텐츠 생태계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인문콘텐츠』 제25호, 인문콘텐츠학회, 2012.
- 이원태,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의 의의와 전개」, 『제1회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 전통문화는 한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조명래, 「문화경제화와 문화 도시계획」, 『도시연구』 제6호, 한국도시연구소, 2000.

- 장용호, 노동렬,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조직화에 관한 연구: <1박 2일>과 <무한도전>의 창의적 생산방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1권 2호, 문화방송, 2010.
- 정수영, 「TV 영상자막의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연구 : 지상파TV 3사의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9.
- 이은정,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시청 선호요인 분석 - <무한도전>과 <1박 2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수진, 「경주 남산에 관한 연구-성스러운 장소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조경학 박사학위 논문, 2004.
- 김태형, 「인생계획에 없던 ‘답사기’, 이젠 사명감 느껴」, 한겨레, 2013. 11. 28.
- 박아름, “‘1박2일’ 경주 답사여행 “재밌는 국사강의” 호평 봇물”, 『Newsen』, 2011.10.23.,
- 양승준, “나영석 PD “유홍준 교수와 답사 여행, 새로운 도전””, 『이데일리』, 2011.10.10.
- 양승준, ““‘1박2일’ 새 길” 답사여행의 진가”, 『이데일리』, 2011.10.17.,
- 윤가이, “‘1박2일’ 유홍준 교수와 경주 답사..‘교과서 필요없네’ 호평”, 『OSEN』, 2011.10.17.
- 윤가이, “‘1박2일’ 경주 답사 마무리..시청자들 ‘감탄 연발’”, 『OSEN』, 2011.10.25.
- 임희진, “‘1박2일’ 경주 남산 7대 보물 답사여행, ‘웃음+감동’ 시청자 호평”, 『엑스포츠뉴스』, 2011.10.17.,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등 국보 지정」, 2009.08.28.,
- 황유진, “‘1박 2일’, 예능의 재발견 ‘경주답사여행’ 호평”,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서양문헌>

Andrew Darley, *Visual Digital Culture: Surface Play and Spectacle in New Media Genres*, 김주환, 『디지털 시대의 영상 문화』, 현실문화연구, 2003.

Fiske, J., & J. Hartley(1982), *Reading Television*. London and NewYork: Methuen. 이익성 역, 『TV읽기』. 서울: 현대미학사, 1994.

Norberg-Schulz, Christian, *Genius loci*, 민경호, 『場所의 魂: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테림문화사, 1996.

Peter Zumthor, *Atmosphären : Architektonische Umgebungen, die Dinge um mich herum*, 장택수, 『페터 Zumthor 분위기』, 나무생각, 2013.

Ralf Schnell, *Medienästhetik*, 강호진, 이상훈, 주경식, 육현승, 『미디어 미학-시청각 지각형식들의 역사와 이론에 대하여』, 이론과 실천, 2005.

Walter Benjamin, *(Das)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최성만, 『발터 벤야민 선집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7.

경주남산연구소, <http://www.kjnamsan.org/>

경주시청 홈페이지, www.gyeongju.go.kr

해피 선데이 <1박 2일> 시청자 게시판,

http://kbbs.kbs.co.kr/board/message/list.do?boardName=2te_happysunday_vboard01

ABSTRACT

A Case Study of the Applic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the TV Real Variety Program - Focused on the Piece of <Namsan in Gyeongju> of the KBS Program of 1-bak-2-ill

Choi, Seung yong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elicit implications in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cultural heritage for the masses by analyzing the piece of <Namsan in Gyeongju> produced with the cultural heritage as the material in the KBS-2TV program of <1-bak-2-ill>, the real variety program.

The piece of <Namsan in Gyeongju> explained as the 'Aura of the place' the atmosphere resulting from the harmony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 perceived by presence at the place. And it explained with the 'storytelling of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ife and cultural heritage to implement the latter in life in connection with our life. And it explained a detailed description, symbolical expression and temporal aesthetical quality of th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artistic technique'.

Prof. Yu Hong-jun specially appearing in the piece of <Namsan in Kyeongju> became the teacher who explained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entertainers became the students listening to his explanation.

That is, the teacher and his students composed the 'narration of the field class' forming the class of the cultural heritage by exploring Namsan in Gyeongju.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exploration, experience and observation of Namsan in Gyeongju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format of the real variety program, the challenge and experience-centered actual situation. And the explan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by Yu Hong-jun, art historian, and the self-expression of entertainers about it resembled the specialist's explan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cess of freely expressing their appreciation and question about it and understanding it in response to it. This has the same context with the narration of figures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character, the characteristic of the real variety program. And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real variety that made active use of the caption to help the audience understand its content and induce them to get committed to it was by explaining and interpreting the content of the narration through the caption in the piece of <Namsan in Gyeongju>.

Keyword : Gyeongju Namsan, Real Variety, 1-bak-2-ill,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Heritage, Culture Contents